

전북현대 “백승호 영입 중단”

유소년 시절 지원해온 수원삼성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 따라 백승호 'K리그 복귀 시 무조건 수원 입단' 2차 합의서 작성해



프로축구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출신 미드필더 백승호(24·사진)의 영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소년 시절 백승호를 지원해온 수원 삼성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전북 백승호 단장은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백승호 영입 작업을 중단한다”면서 “수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먼저다.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북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스포츠인축구협회에 백승호의 로열 톨 적용 여부를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입을 본격 추진했다. 백승호는 2016년 1월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어 올해 1월 5년 톨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북 김상식 감독도 백승호를 두고 “전북 스타일”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선임된 한국 축구 전설 박지성 위원도 지원에 나

섰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입단 전 수원 삼성과 입단 합의를 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 삼성 측에 따르면 백승호는 지난 2010년 바르셀로나 유학 전 매단고 진학 조건으로 수원으로부터 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과 5년 계약을 맺으면서 매단고 진학이 어려워지자 K리그 복귀 시 무조건 수원에 입단한다는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전북은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백승호 영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백 단장은 “K리그 근간을 흔들 이유는 없다. 애초 몰랐던 일이라 진행했지만, 알았다면 영입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원과 리그 경쟁자지만, 동시에 동업자이기도 하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과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다시 영입을 고려할 생각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입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이 백승호 영입에 손을 떼면서 열리는 수원 삼성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백승호가 K리그로 돌아오려면 수원으로부터 선수 포기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거나, 2차 합의서대로 수원 삼성에 입단해야 한다.

수원 삼성 구단 관계자는 “전북이 백승호와 접촉했다 소식을 듣고 우리는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우선 협상을 무시한 채 전북과 계약을 추진할지는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 문제가 아니다. K리그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 해 유소년에만 20여억원을 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어린 선수 육성에 투자하겠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 삼성은 조만간 백승호의 부친을 만날 계획이다. 백승호는 지난 주말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백승호 측과 법적 분쟁까지 준비했던 수원 삼성은 사과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전북이 손을 뗐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원 삼성이 백승호 영입을 원하는 건 아니다.

수원 측은 “구단과 신의를 저버린 선수를 영입하는 건 그다음 문제다. 지금은 백승호 측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작년보다 몸 더 좋아졌어”

토론토 투수코치, 류현진 치켜세워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사진)이 시즌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토론토 투수코치도 그런 류현진을 흠뻑하게 바라보고 있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22일(한국시간) 현지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은 비시즌에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즌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워커 코치는 “지난해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이미 볼펜 피칭에서 50개의 공을 던질 만큼 몸 상태가 좋다”고 류현진을 치켜세웠다.

지난해 토론토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뒤 10월 한국에 돌아온 류현진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훈련에 돌입했다. 지난 1월

펜 피칭에서 50개의 공을 던지며 예열을 시작했다.

2021시즌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류현진은 시범경기를 통해 컨디션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토론토는 3월1일 뉴욕 양키스전을 시작으로 시범경기를 출발한다. 정규시즌 개막은 4월2일 뉴욕 양키스전이다. /뉴시스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야구까지?... 수도권 구단 선수 2명도 학폭 의혹

프로배구에서 촉발된 선수들의 학교 폭력이 프로야구로 번지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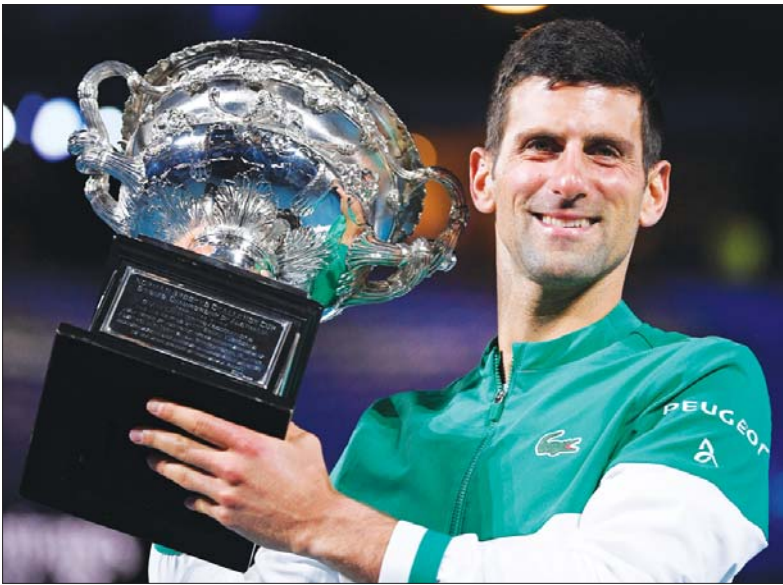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도권 구단 선수 2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고교 야구부 재학 중 A와 B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고교 시절 한술밥을 먹은 A와 B는 20대 초반 선수로, 현재 각각 다른 팀에서 뛰고 있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은 물론 본인 실명까지 공개했다.

구단측은 현재 사실 확인에 나섰다. /뉴시스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결승전에서 다닐 메드베데프(4위·러시아)를 세트스코어 3-0(7-5 6-2 6-2)으로 물리쳐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메이저대회 우승 횟수를 18회로 늘렸다.

역시 조코비치... 호주오픈 3연패 성공

男단식 결승서 다닐 메드베데프 꺾어

지난 2년 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는 노바 조코비치(세르비아)를 위한 무대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은 이는 조코비치였다.

조코비치는 2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전에서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를 3-0(7-5 6-2 5-2)으로 완파했다.

2019년과 2020년 이 대회 우승을 거머쥔 조코

비치는 3년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통산 최다 우승 기록도 9회로 늘었다. 조코비치는 9번의 결승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랭킹 1위 조코비치는 랭킹 4위 메드베데프를 맞아 한 세트도 내주는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냈다. 조코비치는 발리로 우승을 확정된 뒤 코트에 드러누워 기쁨을 표했다.

이번 우승으로 조코비치는 역대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 유지자로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코비치는 311주 연속 세계 1위를 확정, 로저 페더러(스웨덴)의 310주를 넘어섰다. /뉴시스

중·고교 태권도 수업지원 지도사범 위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의 지도사범 20명을 21일 위촉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1월, 이번 사업에 지원한 전국 83개 학교 가운데 서울 잠실고등학교,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경기 부림중학교, 전북 군산영광중학교 등 12개 시도에서 17개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들 학교에는 최대 2명의 사범이 파견되어 정규 체육 시간에 태권도 기술과 호신술 등을 지도한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지도사범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 및 교수법, 표준 콘텐츠 이해와 활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지침 준수 등의 역

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각 학교별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사업 운영지침 및 태권도 용품 관리 등의 설명회를 태권도원에서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용 사업본부장은 “중·고등학교 태권도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태권도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교육청·학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학급당 주 1회(총 30차시) 정규시간 내 태권도 수업을 편성·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